

여러분

지금까지도 여러분께 전해 왔습니다만, 올해 10 월 15 일에 ‘멧세의 전략적인 전개를 통한 문화의 비즈니스화’를 테마로, 가나자와시에서 세계 창의도시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기조연설에는 몬트리올 국제 인테리어 디자인쇼 대표이신 지네트 게더리(Ginette Gadoury) 씨를 모시고 ‘국제 인테리어 디자인쇼 (SIDIM)의 성과와 향후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SIDIM 은 북미의 디자인 분야 멧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멧세 중에 하나로, 1989 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로 제 24 회를 맞이했습니다. 3 일간의 개최기간에 2 만명 이상의 바이어 및 디자인 프로, 비즈니스맨, 소비자가 방문했다고 합니다.

게더리 씨는 SIDIM 의 전시 및 테마 스페이스, 국제적 저널리즘에 채택되는 것의 중요성, SIDIM 의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연설했습니다.

심포지움에서는 ‘멧세의 전략적인 전개를 통한 문화의 비즈니스화’를 테마로 몬트리올시와 더불어 상하이시에서 상하이 창조산업센터 부소장 판진(Pan Jin) 씨, 서울시에서 2010 년 서울 디자인페어 디렉터 최경란 씨, 가나자와시에서 주얼리 장인이시고 오샤레멧세 2008 디렉터 이토 후미코(伊東史子) 씨가 함께 아키토모 유지 (秋元雄史) 가나자와 21 세기 미술관장을 코디네이터로 하여 토론을 펼쳤습니다.

각 시의 전략, 구체적으로는 2005 년에 중국에서 처음으로 창조산업 발전전략이 책정되어 동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상하이시의 ‘상하이 국제 창조산업 위크’, 2008 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는 170 만명의 입장객을 부른 ‘서울 디자인페어’, 가나자와시의 2008, 2009 년의 ‘오샤레 멧세’와 ‘크라프트 투어리즘’에 대해 소개되었습니다.

그 후에 ‘디자인과 공예, 멧세의 국제화’, ‘멧세의 역할’, ‘문화를 비즈니스화하는 데 멧세의 공헌, 경제효과’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의 집약 결과로써 ‘가나자와 어젠더’가 정리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 하에 성공한 이번 포럼의 개요를 아래의 HP 에 게재했으므로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나자와시 HP주소

앞으로도 창의도시 가나자와는 각종 실천적 전략을 추진하며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활동의 발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더없는 건승과 활약을 기원하며,

일본 가나자와시 창의도시추진 담당 드림